

# 열대야에 취객들 동네 편의점서 ‘술판’

### 편의점 설치한 불법 간이테이블 도로 점령 고성 방가에 싸움질까지... 주민들 ‘왕짜증’

“더위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운데 편의점 취객들의 고성방가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밤에도 30도가 가까운 초여대야가 지속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편의점 등지에서 맥주를 마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편의점은 늘어나는 밤손님을 위해 도로변에 간이탁자까지 설치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고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말인 지난 4일 저녁 9시 북구 양산동 한 편의점 앞.

도로위 차선 하나를 차지한 두 개의 간이테이블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거렸다. 도로를 점령한 간이테이블과 주변을 서성이는 취객을 피해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차량들이 바로 옆을 쓴살같이 내달리지만 편의점 간이테이블 위에서 술판을 벌이는 취객들은 전혀 아랑곳하

지 않고 담소를 나눴다.

일부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거나 가벼운 욕설을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옆 손님이 너무 시끄러웠는지 취객들끼리 서로 큰소리를 지르며 욕신각신하기도 했다.

취객들이 편의점 앞을 점령하자 주민들은 도로변 간이테이블을 멀리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26)는 “최근 동네 편의점이 도로변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한 뒤 항상 취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며 “자기를 끼리 큰소리로 웃고 떠들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등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 정 모씨(45·여)는 “길모퉁이 편의점에 항상 취객들이 진을 치고 있어 주변을 지나다니기가 매우 불편하다”며 “도로까지 점령한 저런 간이테이블은 단속대상인 것 같은데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노상테이블에서 시민들이 나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청직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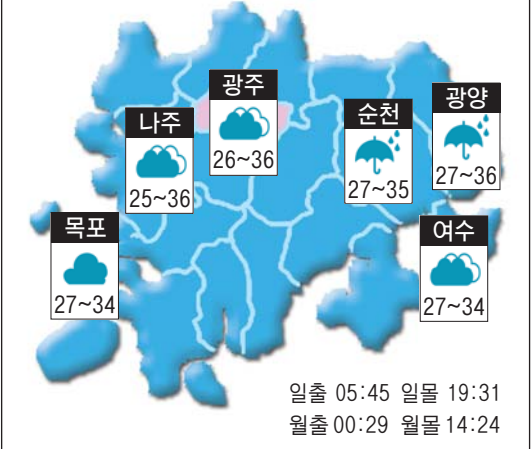
이를 단속하는 구정관계자는 “간이탁자를 설치했다고 영세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기 애매하다 보니 제도만하고 있다”며 “고성 등

생활민원과 도로쪽으로 타자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편의점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은 도로교통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노상 적치물로 간주해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수영 수습기자

### 오늘의 날씨



장성	25~35	흑산도	26~32
담양	25~35	구례	25~36
화순	25~35	곡성	24~36
영광	26~34	완도	26~35
함평	26~36	강진	25~36
무안	26~34	장흥	25~35
영암	25~35	해남	25~35
진도	25~34	고흥	25~35
신안	27~34	보성	24~34

## 36년 전 잃어버린 딸 부모 품으로

### 경찰, DNA 정보로 파주 보호시설서 찾아

36년 만에 딸과 마주한 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을 찾는 아버지에게 딸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 파주시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딸 나 모씨(42·여)와 부모는 나씨가 6살이던 때인 1982년 4월 28일 광주에서 연락이 끊겼다.

나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사했던 어머니가 일하는 사이 집을 나갔다가 부모와 긴 이별을 했다. 부모는 애가 났지만, 지적장애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의 행방을 짐작할 수 없었다.

부모들은 행방불명된 나씨 외에도 장애가 있는 다른 자식을 돌보며 생활고에 발목이 붙잡혔다. 그러던 나씨 부모는 올해 4월

잃어버린 딸을 꼭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부모는 당시 집을 나간 다른 지적장애 딸을 찾아준 적이 있다는 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전담수사팀 문을 두드렸다. 딸이 암 환자인 나씨 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 꼭 나씨를 찾고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나씨 어머니의 유전자(DNA) 샘플을 채취해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분석 결과를 전달,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나씨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잃고 ‘1978년 4월 3일 태어난 최씨’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씨의 부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지난 4일 파주 보호시설에서 36년 만에 딸과 상봉했다. /김종찬 기자

##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검찰 송치

### 업무방해·김영란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내신 시험문제 유출사건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오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김 모씨(58)와 학부모 신 모씨(52·여)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범 관계인 김씨와 신씨는 고3 수험생이자 해당 학교 학생인 신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고자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두 사람 모두에

게,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학부모 신씨는 학교 행정실장 김씨가 몰래 빼낸 시험문제를 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만 간추려 편집본을 만들어 아들에게 이른바 ‘족보’라고 속여 전달했다.

행정실장 김씨는 학교 측 관리소홀을 틈타 등사실에 보관된 시험지 원안을 행정실로 가져와서 복사하는 수법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사본을 통째로 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사실 열쇠는 김씨가 책임자로 있는 행정실이 관리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에 학교 위선이 개입했는지, 과외교사 등 외부인

이 문제풀이와 편집본 제작에 도움을 줬는지, 학생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 범행은 김씨와 신씨 두 사람만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정년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행정실장 김씨가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의사인 신씨는 아들 성적을 올려 의대에 보내겠다는 범행동기가 분명하지만, 행정실장이 적발 시 행사처분은 물론 퇴직연금 손실까지 감내하며 시험문제 유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아직 미묘하다.

경찰은 피의자들 집과 자동차, 일터에서 압수 수색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 분석 대상을 주변인으로 확대했으나 시험문제 유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종찬 기자

### ‘급식 리베이트’ 영양사 등 89명 징계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감사한 결과 55명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은 뒤 구매실적에 따라 OK캐쉬백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적립하거나 커피·영화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00만~300만원을 적립한 영양사와 영양 교사 등 11명에 대해 징적 처분했다.

100만원 이하 뇌물받은 관계자들은 견책,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도 급식실 납품 제품에 부착된 캐시백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서 간식·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급식실 관계자 34명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상 적립한 17명은 교육청과 개별 사립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50만원 이하로 수수한 17명은 주의, 경고 조치했다. /고광민 기자

### 서대석 서구청장, 금품수수혐의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 승진,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 현금을 각각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청장 조사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 등에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